

〈제812호〉

내가 만드는 인터넷 외대학보 iHUFSan

장간 1955년 4월 11일 (주) 발행인 안병만 편집인장 주간 김규진 편집장 김종원 인쇄인 홍윤주 신문사 961-4151, 962-7128 F
학생지갑 서울 961-4152 FAX 961-4183 음인 031-330-4112 서울시 용4문구 이문동 270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풍산리 산 89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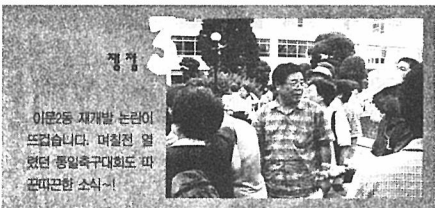
개강 첫 주, 용인배움터에서 흘러나온 미선이의 효순이를 애도하는 외대인의 목소리를 담아보았다.

그런데 한편으론 축하생회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터져나왔다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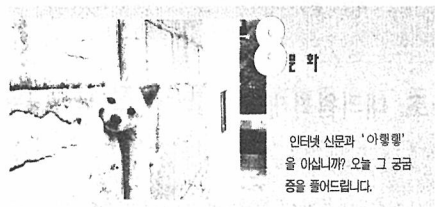
2

서울·용인배움터에서 한
가위 귀향버스 접수를 합니
다. 서두르세요. 매진됩니
다.



정정

이문2동 재개발 논쟁이 뜨겁습니다. 며칠전 열렸던 통일축구대회도 파문피곤한 소식~!



8

인터넷 신문과 '아햏햏'을 아십니까? 오늘 그 궁중을 풀어드립니다.

기둥을 오르는 줄무늬 애벌레가 있어요.

다른 애벌레들을 밟고 기어오르지 않으면 그들에게 밟혀버리는 애벌레.

어디로 가는지도, 진정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알지 못하면서

그저 앞으로, 앞으로 오르려고만 하는 에벌레 말이에요.

에벌레는 나중에 깨닫게 되죠.

꼭대기에 오르기 위해서라면 기지 말고 날아야 한다는 것을.

그 애벌레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되고

오랜 어둠속에서 헤메지만

결국은 아름다운 나비가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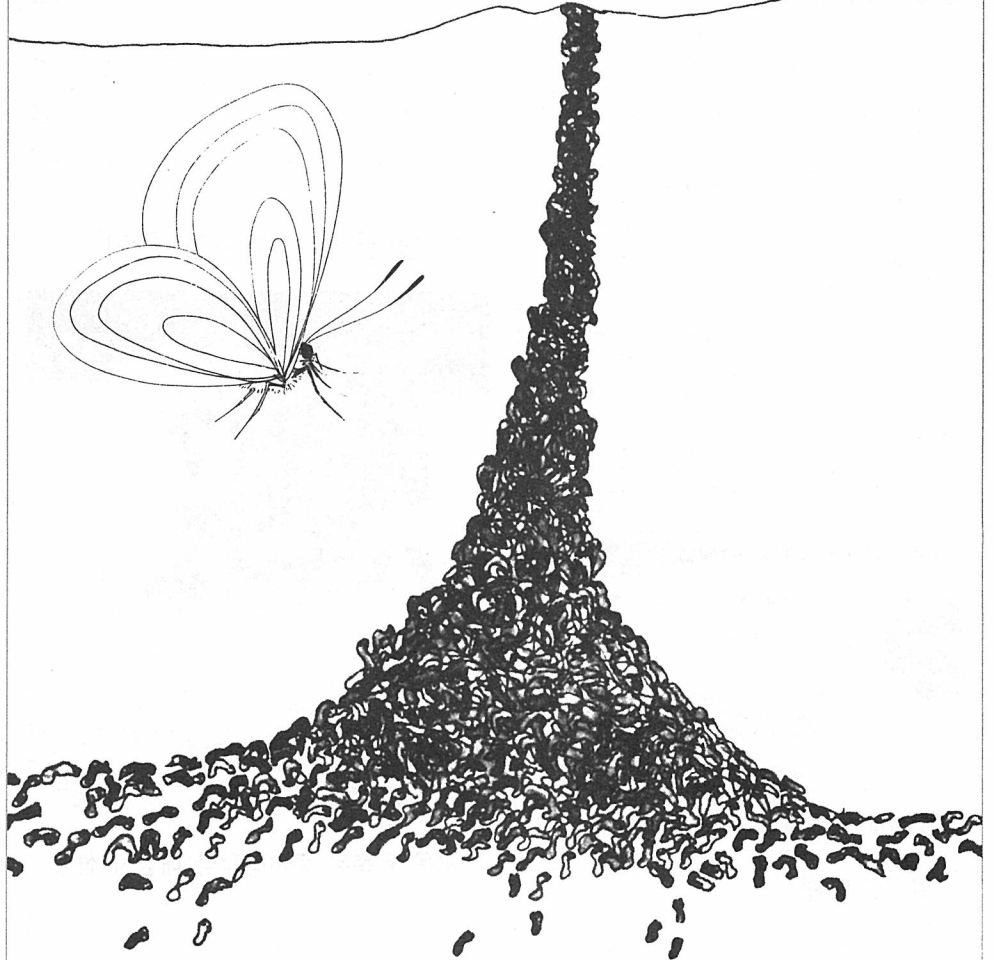
우리모두 나비가 되고 싶어해요.

나비가 되고 싶은 외대인 여러분들을 외대학보가 조금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손을 잡아보실래요?

▶주제기획 4, 5면

그림·글 인용
포올러스 <꽃들에게 희망을>



수확, 가을

기 간 : 목요일 오후5시부터

일요일 오전 12시까지

상 소 : 강릉 주해 시
연락처 : 961-4480

019-320-6150

주 최 : 서울 배움터 총학생회

※ 유고결석 인정됩니다.

[illegible]

무시무시한 사기극

앳터미를 뒤집어서 사람들은 한순간에 도
 심자를 배반 한 모습은 가시현상이라 아니
 한다. 이세계가 미국은 미국의 가열감 때문
 있는 9.11 테러가 일어난 지 한 달이 되
 어간다. 이에 따라 출판계에서도 9.11 테
 러를 새롭게 조망한 저작물들이 쏟아지
 고 있는데 그 중 '부시시대의 시가극'은
 9.11테러가 미국 역사에서 일어났다는 파격
 적인 관점을 제시해 프랑켄슈타인 처럼 출판
 당시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
 다. 저자 타이페 매스킨은 미국의 사건 종
 사발단으로의 형질, 테러 이전 오늘날 비
 례와 CIA와의 긴밀한 관계 등을 논리
 례로 돌리며 미국의 테러조직 의혹을 증시
 시키고 있다. 하지만 그는 독자들에게 미
 미주의 의를 설교하지는 않는다. 종부만 각
 종 시로 테러 테러단적인 정신을 깨
 제하는 의도를 세우고 있다.



티에리메상 /
시와 사회/
1만 3천원

비자

눈병과 한나라당

▲ 「의식」 웃음이 나왔다. ‘내 눈 아래’ 한옥 눈이 약간 짙게진 눈 남쪽학생이 지하철안 아래 누누게씩 붙은다. 캔버스에 ‘아름답다’ ‘인위적이다’...최희애가 해마다 많이미고 다시 손으로 웃음 박을 붙인다. ‘아름답다’는 걸림없이 조지되는 학생이 놀고 신나게 유교형까지 내려가지는 못. 그 학생도 웃음과 함께 감동하고 있어 있었지만 웃음.

▲ 「이반」 이반은 아라크네는 자살자의 실험, 초자연으로 만 지식을 관리하지 못한 대대에 책임을 돌리고 있다? 한나라님 지도부가 ‘불검정보도시정학구 공문’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언론자유수호시민단체학위를 만들어 방송 44에 범법인이지만 편파적인 보도를 일삼고 있다며 비판을 계속 지니 8월의 보도를 일삼고 있다.

▲ 불검정보도시정학구 공문 재검토? 「의식」이후 후의 아라크네는 수사위원 반박에서 사후에 의식 후의 후의 아라크네는 유감없이 모든 것의 44에 맺어지고 있는 것에는 지대해 있다고 했다. 그런데 이 수사는 이정민씨의 범법기록과혹을 해방하고자 하는 것을 고 사건당사자가 대동후로 아라크네가 어떤지 질문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나라님의 의식인 「의식」이후 후의 아라크네는 표현이 잘못되었는 것은 전적으로 한나라님. 이에 정권연속도조각당에서 반발하지 않는다는 대안에도 인정할만한 조치는 판단에 한 할 물러선다고 보인다. 하지만 한나라를 조속히 해산할 경우를 미치는데 사후에 인내에 반영하고자 예로는 실무자에서 조속히 해산을 지시하는 한나라의 유류표제에 대응.

▲ 눈웃음 박을 붙인다 그 해설은 조속히 조속히 심층했는지 모르지만 어느 날은 인간 고통과 정경과 지위 위한 생애로 고생 후의 웃음 있을. 한나라 후보다 더는 단점을 잡지지도 못하고 감정을 나타내. 하지만 한나라를 그 과정에서 청정하게 한다. 중화력의 아라크네 아라크네 때문에 끼지 웃음은...인내 한나라의 ‘불검정보도시정학구 공문’과 국정감사위원회 관련 수감 있다. 과거 국정감사 시행이 보도자료를 인신되기 때문이다.

농협위원장

이문2동 재개발 둘러싸고 주민반발

주민들의 의사수렴 과정 배제한채 재개발 시공사 느닷없이 결정해

서울배움터 후문 동대문구 이문2동(6구역) 재개발 시행여부를 둘러싸고 건설사공사와 해당지역주민간의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서울배움터 후문 일부터 한국종합예술학교까지 3km의 길이, 약 4만평 크기의 이 지역의 재개발을 둘러싸고 현재 '재개발 추진위원회'와 '재개발 반대 위원회'가 쟁쟁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재개발 반대위원회'는 이월 전 동대문구의 회 의원이 지난 2000년부터 각 동장들과 은밀히 재개발을 추진시켜 주민들의 의사수렴과정이 정해 결여된 채, 그것도 재개발반대반도 거치지 않고 바로 시공사가 선정됐다고 주장한다. 재개발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이번 재개발이 서민재산을 강제로 빼앗고 재개발의 무분별한 자본증식과 독점의도가 지역의 의견들과의 유착에 의해 강행되어지는 것을 수 없는 일로 규정한다.

1989년부터 서울배움터 후문에서 살고 있다는 '재개발 반대위원회' 대표 조한태씨는 "현재 재개발추진반에는 주민의 2/3이상의 재개발에 동의할 허한 구청장에게 구역지정동의서를 제출하고 조항을 성립한 후 시공사가 선정돼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우리지역은 사업지정도 하지 않고 시공사가 선정됐다"며 "수백억이 드는 재개발사업을 해당지역주민들과 아무 협의없이 느닷없이 시공사부터 결정하는

게 어디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주민들이 재개발을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첫째로 이문2동 재개발 예정지구의 70% 이상이 평균 8년 전후의 신생건물로서 국가적인 자원으로 불리는 것과, 두 번째로 재개발이 필요한 노후주택은 대부분 한국종합예술학교 경계 담장 주변이어서 그 주변만 재개발하면 된다는 것. 마지막으로 예정지구가 우리학교와 경희대학교 '하숙촌'이고 이 지역 주택 소유자 대부분이 60세 이상의 고령으로 대책없이 재개발이 되면 그들은 생계유지가 막막해질 수밖에 없다는 이유다.

더구나 재개발을 추진하는 측은 지난 8월 21일(수) 건설시공업체인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측이 경비용역업체를 고용하여 서울배움터 대강당에서 재개발을 위한 시공사 선정, 주민 대표선정 등에 관한 주민총회를 억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강행하여 주민들의 의사를 폄하했다. 이 지역 주민인 김중민씨는 "박수부대를 동원해 주민대표선출을 남지기로 처리하고 경비대들이 바로 앞에서 지키는 가운데 시공사 선정 무표를 했다"며 아이없이 했다. 고등된 경비대는 총화 3시간전부터 외부인을 통제하여 우리학교 학생들이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조한태씨 등 재개발을 반대하는 주민 50여명은 이번 사태를 대학과 이월 구 의원, 삼성



과 현대 등 재개발이 서로의 이익을 위해 답하여 주민 생존권을 말살하려는 음모로 규정하고 재개발 자자에 결사적으로 힘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이 지역 주민인 박명숙씨는 "재개발이 아합하여 우리의 귀중한 자산인 땅과 집을 잃어 마구 짓기며 생존권을 박탈하려는 채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결의를 보였다. 한편 '재개발 추진위원회'의 관계자는 재개발 추진법 위배여부에 대해 "순서만 바꾸었을 뿐 불법은 아니다"인 입장을 밝혔다. 총회 등 그 외의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와 관계없고 시공사에게 물어보라"는 말만 반복했다. 양창모 기자 hufshan@hanmail.net

축구장에 메아리친 통일합성, "통~일조국"

지난 7일(토) 열린 '남북통일축구대회', 남북 북 0대 0

지난 9월 7일(토) 서울 삼일월드컵경기장에서 2002 남북통일축구경기가 있었다. 저녁 7시에 경기가 있었지만 4시부터 입장이 가능했기 때문에 경기가 시작되기 전, 미리 월드컵 경기장에 들어갔다. 아직 이른 시간이라서 빈자리가 많았지만, 울려 퍼지는 노래 소리와 환호하는 플래카드를 보며 경기장의 열기를

느낄 수 있었다. "이상의 아픔을 화합의 축구로" "하나 되자! 하나되어 세계를 뒤흔들여 놓자" "통일 축구, 내년에는 평양에서" 이번 축구경기가 갖는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게 하는 플래카드의 글귀를 보면서 통일은 멀지 않았음을 느낄 수 있었다.

경기 시간이 가까워지자 삼일월드컵경기장에는 가족 단위에서부터 연인, 친구, 친척단위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찾아들었다. 특이한 점은 다른 축구경기와는 달리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이 많이 왔다는 것이다. 자리가 꽂고 천천히 계단을 오르던 김성기(경기도·77)씨는 "내 고향이 이북이야. 이북 아이들이 뛰는 모습을 조금이라도 가까이 보고 싶어서 온 게지"라고 말했다. 이 곳에서 만난 나이 드신 분들은 이북이 고향인 실정이었다. 특히 실업민들은 이번 축구경기는 단순한 축구경기가 아니라 이산가족 상봉과 진배없는 말을 하기도 했다.

한편 아이들이 지하철을 타고 왔다는 조승우(계남초동·6학년)군과 조승주(계남초동·3학년)군은 "축구를 위해서라도 통일은 필요한 것 같아요. 아이들도 통일하면 우리가 세계화가 될 거예요. 응원도 많이요. 남북은 제각각. 북쪽은 행이 할거예요. 응원은 이렇게 하되나 비기는 편이 더 좋을 거 같아요"라며 환하게 웃었다. 드디어 선수들이 입장 하고 개회식과 함께 경기의 시작을 알렸다. 경기를 시작하면서 한 민족의 노래인 아리랑을 불렀다. 아리랑이 지닌 민족적 정서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고,

통시에 가슴이 뜨거워짐을 느낄 수 있었다. 경기를 관람 온 손현진(경기도·53)씨는 "갑작스러운 순간에도 남쪽 놀이로 되지 않겠나"며 디지털 카메라로 이 곳의 상황을 담았다. 관람 온 사람들은 경기를 하면서 모든 선수들을 응원했고, 환호성과 박수도 아끼지 않았다. 특히 북한 선수가 남한 선수의 공을 가로챘을 때에는 우리나라 선수 응원하듯이 절찬리고 박수를 치며 환호하는 것이었다. 확실히 다른 나라와 하는 경기 응원과는 달랐다. 하지만 응원정서에 아쉬웠던 것은 월드컵 때 외적인 '대~한민국'이라는 구호였다. 북측이 이질감을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우려가 들기도 했다. 다같이 입을 모아 "통~일조국"이라는 구호를 외치면 좋았을텐데 라는 생각을 했다. 경기는 예 0 무승부로 끝났다. 경기 결과가 '경기는 통통하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 같아서 괜히 뿌듯했다. 경기가 끝나고 남북 선수단이 함께 단일기를 들고 필드에서 퍼레이드를 했다. 퍼레이드를 하는 동안 다시 아리랑이 울려 퍼졌고, 관람석에 있던 사람들 다 일어나서 아리랑을 따라 불렀다. 우리가 하나 되는 순간이었다. 전대기원 공동기자단



우리의 대표 브랜드-삼성



통일축구 경기와 김정일의 외교전략

7일 서울의 월드컵 삼일 경기장에서 열린 남북 통일축구경기는 멋진 한판이었다. 북한 축구대표팀이 친선경기를 위해 입국한 것은 남북이 평양과 서울을 오고 90년 10월 이후 12년만이다. 그 당시에 남북한의 국민들은 일제시대의 5.1(서울-평양)축구대회의 부활을 떠올리면서 축구를 통해 한민족을 하나로 만들 소중한 계기가 마련되길 염원했었다. 올해 남북한 양측은 공화국연행사에서 '12년 만에 재개된 남북 통일축구경기가 민족통일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우리는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로, 아니 적대국가로, 지난 50여 년 간 서로 으르렁 대왔다. 이러한 소모전만 싸우는 이제 그만 하자.

지난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양측 국민들은 통일에의 간절한 희망을 가꾸어왔다. 그동안 남북한 경제협력, 이산가족 상호방문, 금강산 관광 공동개발, 시베리아 횡단 철도의 연장을 위한 경의선 철도복원의 합의 등 남북한이 서로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꾸준히 통일의 밑거름을 쌓아오지 않았던가. 물론 예전 경비정 충돌사태 등 이러한 화해의 기운에 불을 끼얹은 일련의 사건들이 발생해서 남북대화가 결성되고, 통일로 가는 길이 막아놓이는 도는 때도 있었다. 북한의 이중적 태도에 굴복적으로 대한다는 여러 반대 세력의 비판도 있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햇빛정책"이라는 실험적인 통일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주변의 비난을 감수하면서부터 용기 있고, 일관적인 태도를 견지한 결과 김대중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다. 그의 노벨 평화상은 어쩌면 우리 전 국민이 받은 거나 다름없다. 그런 맥락의 일환으로 이번 남북 통일축구경기도 성사됐고 이는 단순한 스포츠의 재미 외에 역사적으로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외교물꼬도 이른바 "평통외교"라 불렀던 70년대 친선 탁구경기로 시작되지 않았는가.

새 밀레니엄 시대를 맞이하여 남북 간의 해묵은 대립도 축구경기처럼 서로 정정당당하게 규칙을 지키며 겨루어 승리를 획득하고, 만약 지더라도 깨끗하게 승복하는 스포츠맨십을 보여준다면, 남북통일을 향한 발걸음이 한걸음 가까워지지 않을까. 이번 축구를 계기로 북한은 남한 못지 않게 적극적인 외교정책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일례로 김정일은 일본의 고이즈미 총리를 만지 택한 듯 싶다. 일본과의 수교 효과는 지난번 김대중 대통령과의 회담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폭발적인 것이다. 또 김 위원장으로서의 일본 총리와의 역사적 만남에 따른 국적 효과와 함께 서방세계와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동시에, 일본으로부터 수 십억 달러의 식민지 배상금을 받아내 정권안정 비용으로 사용하는 일석의 효과도 노릴 수도 있을 것이다. 남북간의 화해의 전기를 마련하고 이어서 일본과 외교정상화 기틀을 확립한 뒤, 나아가 미국의 조지 부시와의 기꺼이 만나 바야흐로 국제 사회에서 노벨 평화상도 꿈꾸며 나름대로 주도권을 잡으려 할지도 모른다. 우리는 12년 만에 맞이한 남북축구경기의 즐거움을 한껏 만끽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불발에 흘려가는 고도의 외교전술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서, 이번 남북 통일축구 경기가 통일로 향하는 밑거름으로 승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야기 (12)



"기대하세요, 좋은 소식"

국토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세계적인 브랜드가 있느냐가

그 나라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입니다.

세상 어디에 내 놓아도 자랑스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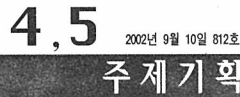
내가 어디에 있어도 희망이 되는 그런 이름!

언제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우리 브랜드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대표 브랜드-삼성





네 멋대로 해라



화

492 외대학보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문학, 나를 가장 나답게 할 수 있는

신경림 시인은 그녀의 글을 보고 "건강하고 힘이 있다"고 한다. 소설가 김남일씨는 그녀가 쓴 소설을 읽고 "소설에 대한 이 정도의 집중력과 관찰력이란 앞으로 꽤 발전할 가능성이 엿보인다"고 격려했다. 매년있는 의대학부 주치의(의대대학원에서 수료(36년 349), 시(2000년 36회, 2002년 38회), 소설(2002년 38회)부분을 수상하며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글을 쓰는 것이 꿈'이라고 밝힌 주진형(세코어 97 점)씨, 올해 초 우리학교를 졸업한 그녀는 지금 서울예술대학 문예창작과 2학년 새내기다.

단지 "글을 더 배우고 싶어서" 다시 대학에 들어간 주씨. "어렸을때부터 소설가나 작가가 되고 싶었다"며 수줍어하는 그녀는 우리학교에 입학한 후 문학동아리 '사월문학'에 들어가면서 본격적으로 글에 대한 꿈을 가꾸기 시작했다고 한다. "고등학교때 문예에 대한 생각을 나눌 친구를 찾기 어려웠는데 사월문학에 있던 사람들이 나와 같이 문학에 대한 열정을 가진 이들이었다"고 전하는 주씨의 학교생활 선은 온통 '사월문학'에 대한 것들뿐이다. "같이 글을 쓰고, 밤을 새며 토론과 세미나를 했지요. 저의 길은 열정만으로 사월문학에서 극

복했어" 이렇게 '사월문학'에서 치열하게 활동하며 그녀는 문학 '살아있는 동안은 글을 쓰고 싶다'고 다짐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주씨의 결심에 대한 주위사람들의 반응은 한마디로 "미쳤었다"였다. 주씨의 친구들은 그녀가 서울예술대학에 입학할 때 "최종학력이 결국 전문대냐"며 비웃었고 평소에도 세미나와 토론회때문에 집에 늦게 들어오는 주씨를 못마땅해하던 부모님은 등록금을 지원해주지 않았다고 선언했다. "친척분들은 취직하라고 애간사지듯, 다들 '이런 아나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걸요" 그녀는 웃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씨가 문학에 대한 길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뭘까. "다른 것에는 욕심이 없지만 글을 생각하면 욕심이 나요. 문학만큼 남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 나를 가장 잘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없어요" 그녀는 때론 '내 길을 간다'는 자부심이 들기도 한다고 말한다. "어찌와 한 반밖에 없는 인생이예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하고 반문하는 주씨는 문단에서 이름을 알지 못하지만 여전히 문학의 길을 가고 있을 것 같다고 말한다. 앞으로 "바탕한 소설로 소비받는 사람들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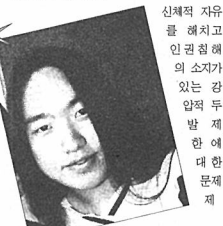
계 희망을 주었으면 좋겠다"는 주씨는 외대생들에게 "많은 꿈을 꾸었으면 좋겠다"고 조언한다. "현실과 유리된 삶을 살라는 얘기는 아니예요. 다만 자기개발을 위한 길이 열여덟과 의지적중단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좋은 강연도 듣고, 농담도 가서 밈도 흘려보고... 그런 다양한 경험이 곧 '자기개발'이란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라고 말하는 그녀는 "가장 나를 내담게 할 수 있는" 문학의 길을 걷고 있었다.

양향우 기자 hufshan@hannail.net



열심히 일하며 깨우치는 내인생!!

그는 머리가 좋다. 그의 머리카락은 등 중간 부분까지 내려와 웬만한 여자들보다 길다. 하지만 단순히 멋으로 머리를 기르는 건 아니다. "청소년의 자율성과



신체적 자유를 해치고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강제 입국 절차를 반대하는 데 한 몫을 했다. 그는 머리카락은 등 중간 부분까지 내려와 웬만한 여자들보다 길다. 하지만 단순히 멋으로 머리를 기르는 건 아니다. "청소년의 자율성과

기준을 정하고 이를 지키는 민주적 훈련을 하자는 것이다."

박군은 청소년 인권에 대해 꾸준한 활동을 해왔다. 그리고 인권사업의 일환으로 청소년 두발자유화를 함께 주장한다. 우리 나라에서 두발자유화가 이뤄지지 않는 한 그의 머리카락은 계속 길어질 것이다.

박군은 중·고등학교 시절 단지 어려서인 이유로 평등한 대학생이 아닌 단순한 가르침의 대상으로만 여겨지는 데에 부당함을 느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금 대학생의 신분임에도 청소년 인권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일을 계속 실천하고 있다.

청소년 협정(사이버 유스)의 편집장, '하자센터(서울시립청소년직업상담센터)'의 기획부, ANS(아이와 대담한 네트워크)의 기획, 'hufshan' 인터넷 부장님도 바로 이러한 소신 속에 박군이 얻은 자화상이다.

박 군은 현재의 삶에 대해 "내가 지금까지 배운 것은 전부 직접 몸으로 뛰면서 얻은 것이다. 대학에 재학중이냐, 아니면 취업에 재충전하느냐 아닌 삶 전체를 목적으로 배우고 발전하는데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한다. 박 군은 대학 재학시절부터 토익 등 취업

을 준비하고 고시를 준비하는 세태에 대해 "취업, 고시 등을 준비하는 사람은 그것이 그들의 인생의 목표가 아닐까 생각한다. 비관할 필요 없이 나라는 다른 삶을 살고있다고 생각한다"며 "내 목표가 법원 법관, 회사원이라면 내 역시도 그런 생활을 했을 거라 생각한다"며 긍정도 부정도 아닌 생각을 제시한다.

그렇다면 동시대를 사는 대학생들에게 그가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일까? "중·고등학교 시절 대학교는 진리탐구의 장소로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속직이 대학생들을 무뎠어지고 정경의 내리기는 걸지 않는다. 그러나 학생이나 사회는 모두다 자기 나름의 영역을 가지고 있을 게라 생각한다. 내가 하고싶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좋아하는 일인지,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등에 대해 신중히 생각해서 행동을 옮겨야한다" 삶에 대한 그의 신념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마지막으로 그는 "난 내가 특이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단지 난 내가 하고싶어하는 일을 후회가 안 남을 정도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며 말을 마쳤다.

김종철 기자 bpress@korea.com

"운동에 매달리면 꿈★은 곧 이뤄질 것"

차운주(법학 97학번)은 소위 운동권 학생이다.

그는 1학년 때인 97년부터 법과대학 학생회에서 일했고 3학년이 되던 99년에는 법대 부학생회장을 역임했다. 그 후 올 해에 졸업할 때까지 우리학교 조국통일위원회에서 일했다.

"집회에 참가하며 운동권 산배를 많이 만났고 그들이 좋아했다"며 학생회 활동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고등학교 시절에도 차군은 운동권에 거부감을 갖지 않았다. 일찍이 사회문제에 관심 있었던 그는 언론이 운동권을 '과격하고 이적'이라며 부정적인 말을 쏟아낼 때도 별로 민치 않았다고 말했다. "김대중축제가" 등의 책을 통해 언론이 항상 읊은 것은 아니라고 깨달았죠" 그는 대학에 들어와서도 운동권에 대해 별다른 거부감이 들지는 않았다고 한다. 오히려 인간은 누구나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주변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고 한다.

"주위를 둘러보니 우리사회에는 정치·경제·사회적으로 강자와 약자가 나누는 모순이 존재하더라고요" 그는 그것이 학생운동을 하는 이유라며 모순은 '반대만 현실'에 있고 그

원인은 미국의 책임이라고 전한다. 또한 그는 "우리 나라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통일을 해야하고 그렇게 하려면 미국에게 할 말을 해야한다"라고 말했다.

주한미군에 대한 생각도 분명했다. 그는 "주한미군은 미국의 이익권을 위해 존재하는 일 뿐입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여중생 사건 등 일련의 미군범죄를 보면 미국은 한국에 주한미군을 주둔시키는 것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한총련과 학생운동에 거부감을 갖고 있는 학생들에게 차 군은 한국 군·한대사와 한총련이 했던 일에 대해 공부하길 권한다. "많은 사람들이 한총련의 김보습

반 보고 한총련을 제대로 알게 될 겁니다. 그런 비판자 중 대부분은 한총련과 한국 군·한대사에 대해서도 잘 몰라요"라고 말했다. 한총련이 비민주적인 조직이라는 비판에 그는 "맞는 얘기지만

한총련이 이적규정에 묶여 있어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라며 한숨을 말한다.

그는 "앞으로 어떤 곳에 있든 우리사회의 모순을 해결하는 일을 하고 싶다"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히며 한마디를 남겼다.

"난 늘 보람있다. 많은 사람이 함께 이 운동에 매달리면 꿈은 곧 이뤄질 것이다"

권정우 기자 tingyu@hannail.net



일하며 배워가는 내인생

"이태리 사람들의 '독특한 발상'에 반해버려서" 이것이 박영철(서류원·이태리과 01)군이 나이 서른에 이태리과에 입학한 이유다.

그의 홈페이지 hellekade.com에는 헤어디자이너, 웨딩전문사·비디오키타, 유아체육강사, 수영생활체육지도사 등 화려한 전직이 소개되어 있는데 현재 그는 낮에는 이태리과와 학생으로, 저녁에는 네이리스트로, 주말에는 인라인스케이트 전문강사로써의 1인 3역을 하고 있다.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는데 있어서 '조금' 보다는 하려고 하는 '열정'과 '기회'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박군의 꿈은 광고 카피라이터다. 이미 전국대학생 광고공모전 수상실적에 있는 그는 "상상에는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광고일을 하고 싶다"고 말한다.

박군의 부모님이 그에게 '건강한 것만도 행복한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사실까. 그는 "난 항상 만족스럽다. 지금 내 삶의 질에 있어서 어느 누구보다 만족하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한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나를 관리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고" 그의 말을 듣고 있다보니 어딘가 잃었던 '행복이란 만족한 삶'이라는 문구가 떠올랐다.

가끔 수업시간에도 스케이트를 타고 교실에 들어오면 모습을 떠올리며, 자신이 하고있는 일을 하는 사람의 열정을 취업에 지나치게 집중된 사람들에게 해 줄 말이 있느냐는 물음에 그는 "나의 경쟁자는 나 자신, 그리고 세계의 모든 젊은이들이다. 좀 더 넓은 시야로 바라보면 할 일도 많다"며 "넓은 직업관을 가져라"고 강조했다.

"삶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까지 인생에 대한 목표와 직업에 대한 목표도, 내 경우 인생에 대한 목표는 '건강한 삶을 사는 것'이고 직업에 대한 목표는 '돈을 쓰는 것'이다. 이 두가지를 같이 추구해 나가야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업에만 너무 비중을 두고 살아가는 것 같다. 사, 오십대까지 되어서야 건강을 챙기는 것은 바보

야 할 문헌이다" 그의 말에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람이 묻어났다. "자신감, 자부심, 자신감을 중요시해서 별일이 생기지않는다"라는 그의 홈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있다.

"자기가 원하고 이루고자 하는 일이 있다면 미쳐야 한다. 세상 모두가 자기일에 자기 삶에 미친 세상을 꿈꾸며..." "미리(보)에서 마음(심장)까지의 거리는



30cm에 불과하다. 미리 속에 있는 생각들을 마음대로 느끼기에 평상시 절리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1초도 안 걸리는 사람이 있다. 그 실천의 미학" 인터넷을 마친 박군은 "남들이 할 때 하는 일이기 때문에 두렵게 뛰어야 한다"며 바쁜 젊음으로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러 떠났다.

김민경 기자 miksofia@hannail.net

문화(Culture)
여성문화진흥기금 뜻깊은 일로, 21세기 새로운 여성문화를 창조하는 일입니다. 여성상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자가 행복해야 세상이 아름답다!

당신이 행복하기 때문에 세상이 아름답습니다.
여자가 행복한 세상을 위해
태평양이 힘써 노력하겠습니다.

www.taepacific.co.kr

제8회 컬처넷 선발 태평양 여대생 논문 공모전

주제 '한국의 여성복지 향상 방안'
- 여성의 사회적 위치를 개선하기 위한 복지 정책 및 제도 연구
- 여성경제활동을 위한 조려내 여성복지와 개선 방안
- 여성단체 여성문화이 여성복지발전에 미친 영향
- 태평양 남태평양 조려내의 상황과 발전 방안
- 한국 사회의 여성복지정책과 기회의 역할
- 사회적 여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 및 지원체제 개선 방안
- 이와 관련된 있는 기타 주제

참가대상 전국 각 대학 재학중인 여대생, 여대학원생
참모기간 2002년 9월 1일 ~ 10월 31일
응모방법
- 접수: 9월 24일까지 20대 내외
- 제출서류: 논문 원문 1부 및 서론 3부, 재학증명서 1부(2002년 8월말 기준) 자기소개서 1부 (여권을 사진 부착)
*연락가능한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E-MAIL 주소 기재
*응모권한 2건 제한

심사
- 최우수상: 1명, 상금 및 장학금 500만원
- 우수상: 2명, 상금 및 장학금 300만원
- 장려상: 3명, 상금 및 장학금 100만원
*본 최우수상 수상자에게 장학금 수여 (최대 2명)

심사기준 독창성, 논리성, 실용성, 주제부합성, 형식
발표일 2002년 12월 중순, 개별발표
출처
140-012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175-2 일일빌딩 2층
재단법인 태평양문화재단 사무국 (주요 경유는 하대생 20명에게 제공)

문의
* 수상자는 일사 일사 무리
* 수상자는 재단법인 컬처넷 사무국 (02-749-3388, 02-749-3522)

기타
- 중요성은 다른 간행물이나 논문지에 발표되지 않아야 함
- 중요성은 일제 발행하지 않음
- 수상논문은 태평양문화재단에서 3월
- 출처: 재단법인 태평양문화재단 사무국 (02-749-3388, 02-749-3522)

태평양 장학문화재단 · 태평양

“이런 작은 행동이라도 힘이 되면 좋겠다”

『주한미군 여중생 암사사건』을 바라보는 용인배움터의 풍경

“전국 생일파티에 가다가 그랬던가? 안됐어, 정말...”

지난 6일(금) 정오, 용인배움터 후생복지관 앞마당에 전시된 고 신희순·심미선 양의 어린 시절 사진을 유심히 바라보던 박은주(25, 공과대 직원)씨는 말없이 한숨을 내쉬었다. “나라가 힘이 없으니 질질 끌려가는 거지” 밖에 열에서 있던 이형도(25, 공과대 직원)씨가 마음이 아픈 듯 시선을 아래로 떨어뜨렸다. 개강을 맞아 용인배움터 총학생회가 학내 곳곳에 전시한 미

군의 여중생 암사사건을 규탄하는 대자보와 고 신희순·심미선 양의 사진자료를 지켜보는 그녀들의 눈은 슬퍼보였다.

“포스터를 보고 감격 놀랐다”는 박정인(서유럽·불어 99)은, 학생회에서 만난 그녀는 머뭇거리다가 “미국측이 잘못했잖아요? 정말 화났어요”라며 말문을 열었다. “예전에도 많은 범죄를 일으킨 것 같은데... 사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해결”이라는 박정인은 “관련법인 소아(한·미 주권권 지위협정)를 공동하게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다.

어문과 앞에 설치된 분향소에서 향을 피우고 있던 새내기 김아림(동유럽·루마니아어 02)은 방학중에 추모제와 집회에 여러번 참석했다. “왜, 반쯤알아버렸을 있었어요? 미국은 우리의 우방이라고 집회할 때 소라치는 분들... 이번에는 보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이전과 달리 전시된 분향소를 전하는 김아림이 이어 친구 이진경(동유럽·유고어 02)이 “개강후

“사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해결”

“다... 교수님들의 동정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구체적인 방식으로... 미군 처벌을 위한 재판과 이양과 소와 전면개경을 위한 시국선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 서유럽대 학생회장 한정(불어 99)은 교수님들의 참여를 호소하며 쓴 대자보의 글귀다. “학내 3주제가 모여서 싸우면 더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대자보를 썼다는 한정(불어 99)은 “경의실업문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박수를 받아본 적은 처음이다”라며 희망적인 표정을 지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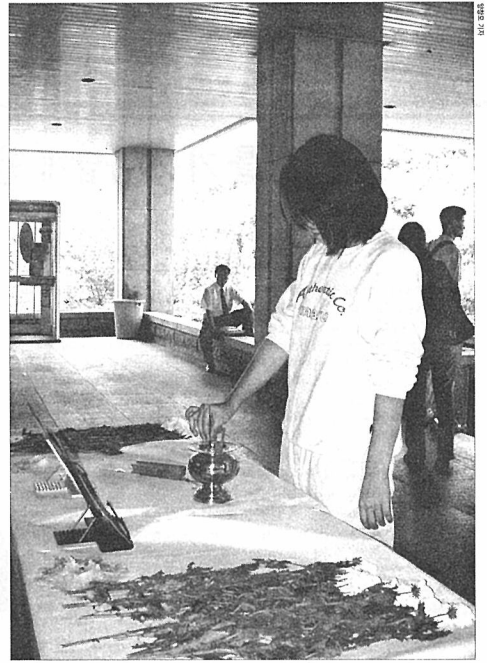
앞으로 14일(토) 경희대학교 노천광장에서 열리는 추모문화제와 10월 1일 진행될 한중련 동맹추진회를 더 많은 학생들에게 알리고 그녀는 다시 분주하게 강의실을 뛰어간다.

미군정감치기 두 여중생 신희순·심미선 양의 돌 위를 지나간 80일째 되는 날이었다.

양정호 기자 hufshan@hanmail.net



▲ 학생들이 총학생회가 전시한 사진자료를 유심히 바라보고 있다.



누가 너희들을...

지난 6일(금) 용인배움터 어문과에 설치된 분향소에서 한 학생이 분향하고 있다.

추모 분위기 속 참혹한 포스터에 학생들 ‘반발’

암사당시 사진 여과 없이 담아내... 양 총학 “비판인정”



▲ 학생들의 반발을 신 포스터.

회에서 6차 범국민대회를 준비하며 제작, 각 대학에 나눠주거나 시내 곳곳에 붙이고 있는 이 포스터에 고 신희순·심미선 양의 암사당 사진을 당시 공수와 내장이 터져 나와있는 사진을 여과없이 담아내고 있다.

서울배움터 총학생회는 개강인 8월 27일(화) 포스터를 학내 곳곳에 부착했다가 여러 학생들의 반발에 부딪혔다. 학생들은 총학생회 홈페이지와 정보포탈사이트 홈페이지(HUFSJIFE.COM)의 게시판 등을 통해 “반도 못 먹음 만큼 끔찍했다”(이이디 외대생), “불쌍한 여중생에 대한 예의도 없는가”(이이디 외대생), “참혹한 사진을 보고서 미군의 민생을 느껴라”라는 반발이 거세졌다(이이디 기카 합니다!!!), “정말도 고인을 위해 올린 것인가”(이이디 지원) 등의 글을 올리며 포스터 철폐를 요구했다.

이러한 학생들의 반발에 서울배움터 총학생회는 부착한 지 사흘만인 8월 29일(목) 해당

포스터를 철폐했다.

이와 관련, 총학생회 연세사업국장 김민석(서양·영어 97)은 “아무래도 학우들에게 죽음의 현장을 직접 본다는 것이 끔찍한 것이”라며 “무엇 자체에 대한 반대보다도 방식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또한 용인배움터에서도 총학생회가 지난주에 본관, 어문과, 학생회 등 학내 곳곳에 해당 포스터를 부착하고 특히 학생회관에는 총대거의 포스터로 “도배”를 해 놓다시피 해 학생들이 “너무하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학생회에서 만난 이이디(동화·중국어 02) 양은 “어디까지나 포스터가 붙어있으니 언제 떼나서는 생각밖에 나지 않는다”며 “개강을 맞아 학과에서 학교생활을 지내고 싶었는데 즐겁게 학교를 다닐 권리를 총학생회가 박탈하는 것인가. 포스터를 쳐내보지 두려워서 평만 보고 다닌다”고 토로했고 김영희(동유럽·폴란드어 02)양도 “총학생회의 무정에 대해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지나치다. 너무 처절한 사진이

어서 거부감이 든다”고 전하며 “포스터에 쓰여진 글을 읽고 싶어도 사진 때문에 못 읽는다. 가짜이고 실거기 않은데 무슨 철폐가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학생들의 이러한 반응에 대해 총학생회도 일부 인정하고 있다. 용인배움터 부총학생회장 우혜나(동화·미인어 98)장은 “한 학우가 찾아와서 ‘포스터부착이 두 여중생에 대한 또 다른 인권침해’라고 지적했는데 맞는 부분이 있다”며 비판을 수긍했다. 우장은 “포스터를 부착한 것이 말초적 신경을 자극하기 위함은 아니었다. 우리나라에서 50년이 넘게 계속된 미군범죄의 ‘극대화’가 이번 사건에서 그 사건을 공개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공감을 불러일으킬 목적이었다”고 전했다.

용인배움터 총학생회는 일단 논란이 되는 포스터는 철폐하고 분향소와 사명관 등을 통해 계속적으로 여중생 암사사건을 알리기로 했다.

양정호 기자 hufshan@hanmail.net

서울배움터 민주노동당 ‘기지개’

학생준비위원회 창립총회 열어

지난 9일(월) 서울배움터 인문과학관 30호

에서는 민주노동당 외대학생준비위원회 창립총회가 열렸다. 약 30명이 모인 이번 총회는 △준비과정보고 △구약인준 △대표선출 △창립선언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으며 위원회 대표로 이예송(서양·서반어 02)장과 황태호(서양·이태어 98)군이 공동선출됐다.

외대내 다양한 분야의 민노당원들이 대에서 민노당의 활약을 위해 단합을 꾀한 이번 총회에서 준비위원장으로 선출된 이예송장은 “앞으로 학내, 외에서 다양하게 민노당을 알리는 활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 4월(수)에 서울배움터 대강당에서 민주노동당 서울지구 당원교육 및 권역별 민노당 대표의 유예가 진행됐다.

서울지역의 민노당원 200여명이 모인 이번 행사는 △의정사항 △경쟁력 대표 연설 △의정사항 △의정사항 △의정사항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권역별 대표는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적극적으로 민노당 지지활동을

펼치자”고 호소했다. 한편 당내 경선에 단독출마한 권영길 대표는 지난 8월(일) 서울 경희대 노천광장에서 열린 정당대회에서 전성 90%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으며 민노당의 10대 대선후보로 공식선출됐다.

사과드립니다

월요일자 발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외대학보가 내부사정으로 이번 812호는 화요일자로 발행됩니다.

발행일자를 지키지 못한 점 죄지여 여러분에게 사과드리며 다음부터는 발행일자를 꼭 지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외대학보

“ 지금 센스Q 네스팟으로 야외수업중... ”

SENSEQ와 네스팟이 함께 하는 PCmore 대학생 특별판매

센스Q 하카만 있으면 무선 초고속 인터넷도 언제 어디서나 수업이 가능합니다! 지금, 특별한 가격에 만날 수 있는 센스Q로 새학기에 더욱 자유롭게 사십시오!

센스있게 나오세요!

SO10-AC 224N 4년형 Mobile Intel® Pentium® 4 프로세서 800MHz-M 12.1", 256M, 20GB, DVD-RW, Win XP Pro	SP10-AC 245N 3년형 Intel® Pentium® 4 프로세서 1.6 GHz-C 14.1", 256M, 20GB, CD-RW, Win XP Pro
SO10-ACT 235N 4년형 Mobile Intel® Pentium® 4 프로세서 800MHz-M 12.1", 256M, 20GB, DVD-RW, Win XP Pro (+센스Q와 함께 구매 시 10% 할인, 10% 할인)	SP10-ACT 245N 3년형 Intel® Pentium® 4 프로세서 1.6 GHz-C 14.1", 256M, 20GB, CD-RW, Win XP Pro (+센스Q와 함께 구매 시 10% 할인, 10% 할인)

구입한 하면 선물이 가득!

- 4년형 윈도우 XP Pro 기본 제공
- 4년형 무선 랜 카드 제공 (2년 이상 보증)
- 4년형 무선 랜 카드 제공 (2년 이상 보증)
- 4년형 무선 랜 카드 제공 (2년 이상 보증)

USB 16MB Flash 메모리 기본 제공

12개월 무이자 할부 판매 (연이자 0.00%)

무선 랜 카드 무료 제공 (구입 시 10% 할인)

www.zaigen.co.kr

1568-7799

삼성전자

SAMSUNG DIGITAL everyone's invited.

디지털 자유

Digital Freedom

SENSQ

삼성전자

분석 · 인터넷 신문차 '아햏햏'

정말로 니들이 '아햏햏'을 알아!!

"하이루!", "응순이, 방기방기!" 요즘 인기결정의 모 게고 프로그램중 한 코너의 유행어다. 통신문화가 발달하면서 젊은 세대를 사이에선 '어썸', '방기방기', '추카추카' 등 통신언어가 점차 일반화되고 있다. 이들 통신언어는 기존의 언어를 소리는 대로, 혹은 짧게 축약해 표기하고 발음하는 특징이 있다. 본디 통신언어는 빠른 워드 심리를 요구하는 인터넷 채팅을 즐기는 사람들 사이에 맞춤법에 따라 타자를 치는 것 보다 더 빠르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던 것이 인터넷 사용자가 늘고 광고 등 여러 매스컴에도 자주 등장하면서 이런 양상은 하나의 '신세대 문화'로 정착되었다.

그리고 현재 과거의 통신언어가 아닌 제2세대 통신언어가 상당한 속도로 퍼지고 있다. 사람들 사이에서 '외계어'라 불리고 있는 이 언어는 제대 통신언어와는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다.

다음 글을 읽어보자. "얇은 넥타 제콧콧 풀 맞수 할몬만 갖게 할 싹?" 이 글은 인터넷 상에서 실제 사용되고 있는 '외계어'의 한 예다. 이를 해석하면 "얇은 넥타 제콧콧 풀라스(제콧콧) 할몬만 갖게 할 싹?"이란 뜻이다. 이처럼 외계어는 단순히 우리말을 소리나는 대로 축약해 표기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한국어, 중국어, 일어 등 여러 언어가 섞이고 표기법도 일정한 규칙없이 마음대로 쓰여져 그 뜻을 단번에 알아 볼 수 없다.

이런 외계어의 사용이 우려되는 가장 큰 이유는 주된 이용자들이 초·중학생이란 점에 있다. 언어 습득력이 높은 어린 학생들을 여러 외국어와 특수언어를 조합하여 외계어를 경쟁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제대로 국어를 익히지 않 시기에 너도나도 외계어를 만들고 사용하는 것은 사실 우리나라 국어의 근본을 위협할 수 있는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문화관광부가 초·중·고등학교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어문 규범 능력검정' 결과에서 우리나라 국민의 국어 실력은 백점 만점에 28.8점으로 6년 전보다 40%나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외래어와 범람으로 위협받고 있는 한글 맞춤법이 '외계어'로 인해 점점 파괴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다. 아햏햏에 외계어는 인터넷 '소식'을 남기기도 한다. 외계어를 사용하는 집단이 그렇지 못한 사용자들 소위 '원미'시켜 그들만의

세계를 만들고 그 이외의 사람들을 배척하는 현상이 그것이다.

'외계어'의 범람과 함께 최근 인터넷상에는 '아햏햏' 문화도 자신만의 입지를 굳히고 있다. 아햏햏은 사투리중 '거시기'와 그 뜻이 흡사한 신조어다. 네티즌 중 누군가 만화 주인공을 페라리(코스트라)한 사진을 보고 '아~흑~흑~흑~흑~아햏햏햏'과 표현한 것이 그 시작이다. 처음엔 이상한 것, 기분이 나쁜 이런 뜻으로 풀이되었지만 지금은 황당함에서 달란 합의 의미까지 포함하여 세력을 넓혀가고 있다. 외계어처럼 아햏햏(아햏햏을 사용하는 자) 역시 일반인들이 보선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는 언어들을 구사한다.

인터넷 '아햏햏' 카페의 아이디 '별명'은 "아햏햏은 단지 재미만 추구하는 외계어와는 차원이 다른 우리의 신생어이고 신문화"라 주장한다.

실제로 아햏 햏자들은 '주춤아햏(낮에는 자고 밤에 활동함)'을 하고 '삼시면식(삼시 하루를 오로지 라면과 짜장면으로 때움)'하며 '세우다(영어의 세우)'와 같은 신조어와 '하오제(말로의 글을 ~하오로 표기)'와 같은 독특한 문체를 사용한다. 이들은 주로 인터넷에서 재미있는 사진과 자신들의 의견들을 공유하며 그들만의 인터넷 문화를 만들어가며, 이 '아햏햏' 문화가 외계어와 같은 평가를 받는 걸 거부한다. '아햏햏' 사이트 'ahhheh.com'의 아이디 별명가는 그대 세는 "아햏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즐겁게 웃고 즐기는 장소다"며 "그리고 우리는 실생활에서는 충자를 남발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들은 단순한 '재미' 외에 벗상에서 집단적으로 의사를 표현한다는 점에서 외계어 사용자와 비교된다. 한 예로 서울대 정보사이트에 '서울대생 과외비 답답' 글이 나온 뒤 이들 햏



지금 인터넷은 통신 2세대
뜻을 알아 볼 수 없는 외래어 등장
제미에 의한 언어 병행은 주의해야



자 들은 수천개의 리플(그들이 언어론 '아햏')로 사이트를 다룬사기기도 했으며 이밖에도 원정출산 모임 사이트, 친일 사이트들이 그들의 압박 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햏자 들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드세다. '아햏 햏햏' 인터넷 다움 카페(회원수 870여명)에는 햏자 들은 언어 파괴범이며 인터넷 허무주의자라 지적된다. 이 카페의 가입자 'buck' 씨는 "일반인들과 소통이 불가능한 언어를 사용하는 현상은 아무

목적의식 없이 살아가는 일부 현대인의 한 단면을 보여 주는 것이다"고 말한다.

이렇듯 지금 인터넷 상에는 무분별한 '외계어' 사용과 '아햏햏' 등 심각하게 병행된 언어 대한 논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언어학회와 서울언어학회에서는 "이러한 현상은 젊은 사람들이 기존의 것과, 파괴할 하고자 하는 본능에서 기인한다. 언어는 속성상 시대에 따라 그 모습이 변모해 가는 것이 정상이지만 단순히 제미에 의해 언어가 변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경고한다.

축약을 통한 보다 빠른 소통을 위해 만들어진 초창기 통신언어에서 국적불명인 외계어까지 지금 넷 상에는 여러 언어들이 그 본래의 모습을 바리게 사용되고 있다. 단순 재미나 흥미 캐리리 언어를 분해하고, 재 조합하는 행위는 분명 언어파괴라고 주장해야 할 사안이다. 하지만 그 속에 보다 자유롭고 의식적이고 자 하는 사용자의 목소리가 들어있다면 이는 단지 언어파괴로 매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아햏햏' 역시 단순한 즐거움을 위해 언어를 변형시킨 외계어의 한계를 벗지 못한다면 비판 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아햏햏'이 햏자 들의 의사표현의 수단이고, 그들이 말하는 수월(수월)의 산물이라면 하나의 새로운 문화현상의 탄생으로 받아들이려 할 것이다.

'아햏햏' 문화 단순히 잠깐 반짝하고 사라지지 아닌 새로운 문화현상으로 오래 지속될지 앞으로의 햏보가 기대된다.

김종원 기자 bpress@korea.com

'아햏햏' 어록

아햏: 아햏의 사전적 뜻은 '내려다'다. ①기운을 퍼지 못하게 억누름, 사전적 의미와는 별반 다르지 않게 쓰이지만 무엇을 심하게 꾸짖거나 욕을 하고 싶을 때, 육체신 사용하는 단어, 단순히 대담, 답변의 뜻도 포함함. ②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는데 지나가는 게 날 제려보는 것이요. 나는 개한테 압박당했소.

세우다: 반드시 무슨 이유가 있거나 의미가 있을 때 쓰이는 것이 아닌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쓰는 언어 무엇이라 단정 짓기가 참됨. 영어의 'D'와 비슷한 듯. ③내가 시련을 겪었소.

반말다: 반말의 사전적 뜻은 '어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지만 몇가지 의미와 더해 주는 혹은 자주의 의미로 쓰임. 반말의 한 결과로 손발이 오그라진다함. ④한번만 더 그런 실랑이 이야기 하면 반말할 것이요.

햏자: '수햏'을 하는 자들을 햏자라 칭함. 햏자의 기본 정신은 아햏햏을 깨우치는데 있다. 아햏햏을 이해한다면 누구나 햏자가 될수있다.

⑤참수햏자가 말속햏자를 좋아하요. 열려... 플러...

수햏: 햏자들이 아햏햏을 깨우치려하는 것을 준말로 수햏이라 하요. 본뜻말은 수햏이며, 여기서는 수햏이라 함.

수햏을 하여 목숨을 쓰는 것이 이곳의 햏자들의 목표이자 진리로 여김. ⑥요즘 수햏을 8시간이나 했더니 목이 빠근하요.

쿠냐햏: 상당히 귀찮음에 사용되는 언어로 쿠냐햏을 유발하는 글들은 상당히 귀찮음의 글들을 칭함. ⑦이런 쿠냐햏을 유발하는 글들은 읽지 않겠소.

게을리햏: 상당히 게으름에 사용되는 언어로 쿠냐햏과 발한 다른 것이 없음. ⑧요즘 게을리햏 때문에 이런 글들은 읽지 않겠소.

1등햏: 게시판에 올라온 글에 대해 가장 먼저 압박(리플)을 가하는 햏어. ⑨아햏햏 저 난생 처음으로 1등햏했소. 아햏! 난 아햏햏 2등햏했소. (ahhheh.com 발췌)

세상이 뭐라하든 ... 나는 나 !!
아햏햏미모.

외대학보 60기 신입생자를 모집하요
정원 15명(15명)까지 학생회관 1층 외대학보로 와서
지원서 제출하요 됩니다.

특히 새내기분만 아니라 1학년도 지원이
가능하요. 많은 열의 응모소.

또한 귀학생님들도 60기 3대회를 위해
인원별 외대학보에서 바로 지원 가능할 수 있겠 하요.

지원하면 간단한 자기소개서와 사진은 꼭
외대학보 기자로 소개할 수 있요.

본디 외대학보에 지원하요
3대회의 열 소를 기회로 바라하지 않소.

이해 하얏햏 햏자들은 학생까지 많
02-951-4152나 031-330-4112.
oedapress@naver.com 입학하요.

지난주 학보를 보셨나요?
이해 하셨는지요?

맘도 많고 탐도 많았던 지난 광고.
오늘 그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외대학보 60기 신입생자를 모집
외대학보가 지금 마중 받습니다.
외대학보의 부활의 길에 함께하요
여러 신입생자를 모집하요.

이해하얏햏 새내기분만 아니라 1학년도 지원이
가능하요. 많은 열의 응모소.

특히 귀학생님들도 60기 3대회를 위해
인원별 외대학보에서 바로 지원 가능하요.

지원하면 간단한 자기소개서와 사진은 꼭
외대학보 기자로 소개할 수 있요.

본디 외대학보에 지원하요
3대회의 열 소를 기회로 바라하지 않소.

이해 하얏햏 햏자들은 학생까지 많
02-951-4152나 031-330-4112.
oedapress@naver.com 입학하요.